

# “조달시장, 10년전 단가... 정책자금 이자도 천차만별”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앙부처 소극적 규제 개선 아쉬워  
해묵은 기준, 조달 참여 기업 악영향  
과도한 단가 삭감에 왜곡현상 초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조달시장과 금융 분야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의 경우 해묵은 기준 때문에

조달 참여 기업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금융 분야는 가뜰이나 소외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역차별을 받거나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재창업의 발목을 잡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12일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 5년전,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아 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를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도 천차만별인데다 오히려 어려운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 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조달시장에서 매년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요인에도 다수공급자 계약(MAS)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업 현장의 불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있지만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삭감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애로는 지난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금은 없어진 연대보증 문제 역시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30년간가게 기업 운영하며 대표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만 경험했던 그가 ‘규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맡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는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 굉장히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성의없이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농사와 산림 관련된 부처는 규제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다(웃음)”는 말로 애들러 소극적인 부처들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나 애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뛰다보니 지난해엔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로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의 지정규제 부담 완

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도 그 중 하나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 연어시장이 6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 해에 수입하는 연어만 7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과 수협이 힘을 모아 개발한 연어 양식기술이 위해 우려종 지정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결국 연어알을 수입, 육상에서 양식해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 15조원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게 된 것도 박 옴부즈만이 노력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돼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가용 비행기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임 관세청장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애로가 해결돼 하루에 약 2대 꼴로 이용하는 SGBA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가 한결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한샘, 140cm 상판적용 ‘아이디S’ 책상 선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



‘아이디S’ 책상

한샘은 신학기를 맞아 한샘디자인파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제품 ‘아이디S’ 책상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샘 ‘아이디S’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책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에 최대 140cm의 넓은 상판을 적용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책받침 아니라 학용품, 화장품 등 작은 비품들이 많은 점을 반영했다.

책상 표면에는 LPM(저압 흡침지) 소재를 적용해 스크래치나 들뜸 현상을 방지했다. 또, 모바일 학습이 많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USB와 콘센트 충전이 가능한 멀티탭 기능을 추가했다.

이 제품은 책상과 책장이 결합된 ‘일자책상’과 분리된 ‘단독책상’ 중 선택 가능하다. 사이즈는 가로 120cm와 140cm 중에 고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中企 R&D 인력, 20대는 줄고 40대 늘어

중기연구원 R&D인력 현황분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R&D 인력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 연구원의 청년 비중은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개발 인력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구능력 상실을 막기 위해 청년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 정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연구원의 고령화 현상은 최근 10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청년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08년 78.4%에서 2018년 54.3%로 24.1%포인트 줄었다. 이는 중견기업(64.7%)과 일반 대기업(62.0%)의 청년 연구원 비중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두 배로 뛰었다. 2008년 21.6%이던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연구원 비중은 2018년 45.7%로 24.1%포인트 늘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중기부, 1951억 규모 팁스 창업지원정책 발표

# “4차 산업혁명 분야 확대... 소·부·장 특화”

(소재·부품·장비)

팁스 연중 수시로 모집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9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팁스(TIPS)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프리팁스(Pre-TIPS)·팁스(TIPS)·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별로 별도 발표했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사업별 신청 및 평가시기를 사전에 공지해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한 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연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하면 엔젤투자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 30개, 팁스 300개, 포스

트팁스 40개 내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팁스는 1000만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지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팁스 운영사가 1~2억원을 선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10억원 이상 후속 투자를 유지한 팁스 성공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프리팁스는 2·5·9월로 세 차례, 포스트팁스는 5·6월과 10·11월로 두 차례, 팁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올해 팁스는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포럼을 확대한다. 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

장비 가점과 특화형 추천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팁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프리팁스 성공판정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프리팁스 졸업기업에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준다.

해의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기술 분야별로 구성됐던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한다. 진출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 및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韓 의료 영상기반 3D 프린팅 표준안,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 분야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에 관한 표준안 2건이 신규 프로젝트로 최

종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전문가 주도로 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경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된 표준안 2건은 환자의 의료 영상에 기반을 둔

맞춤형 3D프린팅 보형물 제작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밀한 환자 맞춤형 3D 모델과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기기 제작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